03□□□(□□)_□□□□□□15□ 13. 8. 13. □□ 4:24 Page 63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5호 2013.06. pp.63~86

김정은 단독 통치 시기 문화예술의 특징*

The Characters of culture and art of the Kim Jeong-eun's sole dominion period

김정수(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 례

1. 여는 글
2. 김정은의 포부: 선군 '사회주의 문명국'
3. 문화예술계의 동향(動向)과 작품 분석
1) 선군 잇기와 김정일 우상화
2) 여성의 전면화(前面化)
3) 중국「러시아「서구와의 적극적 교류
4) 과감한 스펙터클의 장려
4. 맺는 글: 전망

1. 여는 글

본 연구는 김정은 단독 통치 시기인 2012년 북한 문화예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망을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는 60년이 넘는 남북한 분단의 극복과 소통을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정치/경제적 변동이 예측되며, 현재 서서히 그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정치/경제적 변화는 곧 의식의 변화와 맞물리는 것이며, 그것은 문화예술에서 실체를/그림자를 드러낼

* 이 논문은 2013년 6월 25일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주최 제13회 국제학술대회 "장소와 치유—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에서 발표한 논문 "북한의 연극외교—공감과 결속"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3301).

03□□□(□□)_□□□□□□15□ 13. 8. 13. □□ 4:24 Page 64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단독으로 북한을 통치해야 하는 김정은은 무엇을 의식/무의식적으로 욕망하는 것일까? 이에 따라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단독통치시기의 문화예술을 다각도에서 점검하며 그 특성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올바른 전망을 위해서는 최근까지의 북한 문화예술계와 작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201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최신 북한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며, 최신의 동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보다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성의 시대인 21세기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점검으로써 북한을 이해하고, 향후 전망에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남북한의 소통에 기여하고, 문자의 시대를 벗어난 우리의 후속 세대와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북한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김정은의 포부: 선군(先軍) '사회주의 문명국'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2주후인 2011년 12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올랐다. 28세에 맞이한 아버지의 사망은 김정은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부자지간이기에 가능한 '나의 편'의 부재이며 '정서적 의지처'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신년 공동사설을 내어놓아야 했다. 체제의 안정과 통치자로서의 입지 강화는 상(喪)을 당한 김정은의 감정보다 시급한 것이다. 신년 공동사설은 적어도 그 한해 북한 체제의 방향 천명인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고심 끝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03□□□(□□)_□□□□□□15□ 13. 8. 13. □□ 4:24 Page 65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 작품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

…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어 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대고조의 벅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하고 통속적인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청년들과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 주어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부풀어 오른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가장 우수한 우리의 문화와 도덕,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임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1)]

김정은의 신년담론은 1.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 2.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3. 군중예술활동의 활성화, 4. 체육에 대한 관심, 5.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분쇄로 요약된다. 김정은의 새로움을 감지하기 위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 1. 1.

03□□□(□□)_□□□□□□15□ 13. 8. 13. □□ 4:24 Page 66

해서는 2011년도 김정일의 문화예술관련 신년 공동사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경희극《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들이 련이어 창조된 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
> …
>
>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자는 것이
>
> …
>
>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고 의학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온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
> …
>
>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호소성이 강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2)]

김정일의 2011년 신년담론은 1.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자, 2. 온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자, 3. 우리식, 4. 군중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2012년 김정은의 신년담론은 실상 2011년 김정일의

2)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1. 1. 1.

03□□□(□□)_□□□□□□15□ 13. 8. 13. □□ 4:24 Page 67

신년담론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2011년 담론에서 14회의 '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바 있으며, 2012년 김정은은 17회의 '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발표된 당위원회 공동구호에서도 이 같은 맥락이 읽혀진다.

> 대고조진군에서 선전선동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
>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자!
> 모든 선전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 혁명적군인문화를 따라배워 군중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자!…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분쇄하라!…
> 지식경제시대,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신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라!…
> 우리 나라를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자!…
>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태도와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라!
> 연극《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결작들로 주체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라!…
> 연극《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처럼 살며 일하고있는가![3]

조선로동당 중앙위/군사위는 주저 없이 '선군'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군인문화를 따라 배워야 하며, 선전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특히 연극「오늘을 추억하리」를 두 번씩 언급하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냐고 묻기까지 한다. 2012년 김정은의 신년사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포부와 실천은 별개의 것이다. 이 같은 담론의 실현과 작품에 대해서는 곧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2011. 12. 31.

03□□□(□□)_□□□□□□15□ 13. 8. 13. □□ 4:24 Page 68

이다. 본 장에서는 2012년을 열면서 김정은이 타의/자의에 의해 문화예술과 관련해 품었던 포부는 분명 '선군(先軍) 사회주의 문명국'이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4)]

3.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작품 분석

1) 선군 잇기와 김정일의 우상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중앙위·군사위가 2011년 12월 30일 당 공동구호에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작품이다.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언급된 이 연극은 연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12년 북한 문화예술계의 한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2011년 7월 14일부터 무대에 올랐으며 왼쪽 사진과 같이 김정일/김정은이 함께 관람한 작품이기에 북한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연극이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화답하듯, 북한의 대표적 예술잡지인 《조선예술》은 「오늘을 추억하리」와 관련된 기사를 2012년 1월호에만 4편을 실었다.[5)] 연이어 2월호에서도 3편의 글이[6)], 3월호에 1편이[7)], 5월호에 1편의 글이 실린 것은[8)]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가 2012년 김정은의 정책에 가장 훌

4) 김정일이 2011년 사설에서 '문명'이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반면,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설에서 이 용어를 4회 사용했다. 사전적으로는 '문화'가 정신적/지적 발전에, '문명'이 물질적/기술적 발전에 보다 가깝지만, 실상 이 둘은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03□□□(□□)_□□□□□□15□ 13. 8. 13. □□ 4:24 Page 69

륭히 부합된 작품임을 충분히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일성상 계관작품 「오늘을 추억하리」는 어떠한 연극인가?

>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어느 한 산간군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를 산화폭으로 펼친 작품이다…주인공 강산옥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가는 선군시대 일군의 전형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작품은 광천부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일군들속에서 보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량심과 도리를 지키고 사회주의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리하게 밝히고 있다.[9]

이 작품은 주인공 강산옥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내용의 작품이다. 김정일에 대한 헌신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북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유독 연초에 주목받는 이유는 연극의 제목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과거의 추억은 결코 아픔만이 아니었다는, 추억은 미래를 연다는 암시를 통해 낙관적 미래를 약속하며, 김정일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통해 김정일과 김정일의 선군을 이어가

5) 국립연극단 단장 리지영, 「그 유훈 받드는 길에서 시대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국립연극단 인민배우 백승란, 「(수기) 장군님께서 다진 맹세 끝까지 지켜가리」, 서철, 「풍부한 미적정서를 안받침한 음향형상」, 주영숙, 「(평론)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더해준 부정인물들의 개성적인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2. 1.
6) 국립연극단 예술부단장 김홍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연극창조집단의 잠재력을 더 높이 과시해나가겠다」,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 정준하, 「인상깊은 두 장면을 통해 본 대비수법의 형상적 효과」, 《조선예술》, 2012. 2.
7) 방금철, 「주체적인 연극무대미술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생동한 화폭—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무대미술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2012. 3.
8) 리금철, 「생활반영의 진실성문제를 두고」, 《조선예술》, 2012. 5.
9)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 《조선예술》, 2012. 2.

03□□□(□□)_□□□□□□15□ 13. 8. 13. □□ 4:24 Page 70

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김정일의 우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 우상화 관련 사업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10)]

사업	발표내용	발표지
『김정일전집』 발행[1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념원을 담아 그이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을 발행하게 된다.	로동신문, 2012. 1. 10.
광명성절 제정,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의 건립	1.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란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 것이다.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 4. 전국 각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영생탑을 건립할 것이다.	로동신문, 2012. 1. 12.
김정일 훈장 제정	1.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을 제정한다. 김정일훈장은 김일성훈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이다.	로동신문, 2012. 2. 5.
김정일 기록 영화의 제작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의 제1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리'(전/후편)가 2월 말에, 제2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리'가 3월 중순에 발표되었다.	로동신문, 2012. 3. 1. 2012. 3. 22.

10) 김정일 우상화 관련은 2012년 11월 통일정책포럼, 박영정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념원을 담아 그이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을 발행하게 된다.", 《로동신문》, 2012. 1. 10.

03□□□(□□)_□□□□□□15□ 13. 8. 13. □□ 4:24 Page 71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김정일 우상화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12년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가장 급선무는 자신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정통성을 획득하는 것일 터, 김정일의 우상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다만 김정은의 외할머니 김정숙의 우상화 등을 통한 폭넓은 방법/우회적 방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2) 여성의 전면화(前面化)

2012년도 김정은 체제 북한 문화예술계에서 주목할 것은 광명성절 이외에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11월 16일을 첫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로동신문》(2012년 11월 17일)은 「어머니날을 뜻깊게 경축 각지에서」라는 제목으로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축하모임, 예술공연, 자랑무대, 실화연단 등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 어머니날을 뜻깊게 경축 각지에서—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해인 올해 어머니날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헌신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고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천만아들딸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어머니날을 맞이한 기쁨과 환희가 넘쳐흐르는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축하모임, 예술공연, 자랑무대, 실화연단 등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처럼 당과 수령,국가의 보살핌속에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것입니다.》[12]

12) 『로동신문』, 2012. 11. 17.

03□□□(□□)_□□□□□□15□ 13. 8. 13. □□ 4:24 Page 72

여성이 문화예술계에서 전면화된 것이다. 〈어머니날〉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에서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경희극 「사랑」, 예술영화 「어머니의 행복」, 「녀인의 손」, 「행복의 수레바퀴」 등이 공연'되었는데, 북한의 문헌을 면밀히 검토할 때, 이 같은 '여성의 전면화'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부터 시작됨이 발견된다. 2011년 7월 공연된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은 딸 송희의 죽음을 딛고 서게 되는 중년의 여성이다. 이같이 중년여성의 전면화는 2012년 영화계에 이어진다. 다음은 로동신문이 2월에 소개한 예술영화 「소원」에 대한 글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보아주신 예술영화 〈소원〉은…… 독연 〈소원〉에 기초하여 만든…… 예술영화 〈소원〉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매 가정, 사회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투쟁관점과 일본새를 지니고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절절히 깨우쳐주고있다...영화는 근위부대군관의 안해인 주인공 봄순이가 남편이 지니고있는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우리 병사들의 삶의 의무, 한생의 소원이 어떤것인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고있다.[13]

연극 「소원」에 기초하여 제작된 영화 「소원」은 예측되듯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받드는 모범적 인민을 그려내고

13) 『로동신문』, 2012. 2. 28.

03□□□(□□)_□□□□□□15□ 13. 8. 13. □□ 4:24 Page 73

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요 인물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군관의 아내인 주인공 봄순이 남편의 소원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주 플롯으로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달 후 《로동신문》에서 소개된 예술영화 「들꽃소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들꽃소녀》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주체85(1996)년 6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현지지도표식비에 정성껏 마련한 들꽃묶음을 놓아드려 어버이장군님의 마음속에 깊은 추억을 남긴 한 소녀를 원형으로 하여 만든 감흥이 큰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는 어린시절의 소행을 기특히 여기시여 《들꽃소녀》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첫날부터 훈련에 성실한 땀을 바쳐간다…… 항상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그는 비행기착륙시의 미세한 결함을 포착하고 천번, 만번중 한번이나 있을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찾아낼수 있게 한다. 영화는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진실하고 소박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 병사들의 삶의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14)]

영화 「소원」과 「들꽃소녀」의 주인공은 모두 여성으로 김일성/김정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인물인 것이다. 이 전형화된 여성들은 영화계뿐 아니라 문학계에서도 발견된다.

14) 『로동신문』, 2012. 3. 31

03□□□(□□)_□□□□□□15□ 13. 8. 13. □□ 4:24 Page 74

《조선문학》 2012년 3월호에 실린 「까치봉의 큰집」에서도 주인공은 여성으로 설정된다. 주인공 하선금은 설계기사이며 남편 철친과 아들 위성을 둔 가정주부이다. 물론 하선금도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 2012년 북한은 전문가형 근로 인테리 여성을 독려하는 것이다.

연극 · 영화 · 문학의 동향을 볼 때 올해 가을 김정숙 관련 기사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로동신문》(2012. 10. 6)은 「한편의 연극이 전하는 충정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1946년 김정숙이 연극 「뢰성」을 보면서 배우들에게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한 연극을 창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편의 연극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작품으로 창작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게 하시였다'며 글을 맺는다. 물론 김정숙 관련 글은 김정숙 우상화를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우상화를 잠시 제외한다면, 북한의 여성 주인공 영화 · 소설창작, 김정숙 회고글, 어머니날 제정은 2012년 북한이 여성을, 특히 가정주부를 전면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 중국 · 러시아 · 서구와의 적극적 교류

올해 1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6차 발렌씨아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나라 교예 〈비행가들〉에 축전회고상 수여」라는 제목으로, 북한 교예의 국제축전 수상을 선전했다. 새해에 국제축전을 선전한 것은 2012년 북한의 문화예술계가 초점을 둔 횡보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연이은 중국과의 교류관련 기사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조중친선 사업으로 창조된 「량산백과 축영대」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중국에서 대성황리에 공연되었다. 북한이 1950~60년대 레퍼토리를 복원하여 리메이크 하는 경향은 2009년부터

03□□□(□□)_□□□□□□15□ 13. 8. 13. □□ 4:24 Page 75

시작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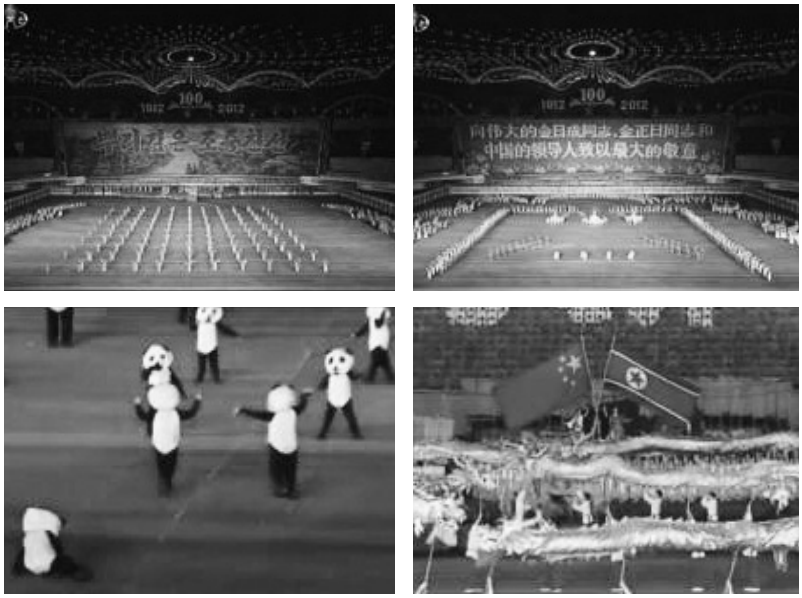
공연제목	공연단체	공연날짜	비고
〈예브게니 오네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2010. 2.	러시아가극, 1958년 평양음악대학 초연
〈량산백과 축영대〉	피바다가극단	2010	중국가극, 한국전쟁시기 1952~1953년에 중국 군위총문예공작단 월극단의 월극 〈양산백과 축영대〉와 〈서유기〉 공연이 전시 위문 형식으로 공연
〈홍루몽〉	피바다가극단	2009	중국가극, 1963년 북한 공연, 창극 〈홍루몽〉으로 재창작.
〈네온등 밑의 초병〉	국립연극단	2009	중국연극, 1963년 북한 국립연극극장 공연

「홍루몽」과 「네온등 밑의 초병」은 1950~1960년대 북한이 공연했던 작품이며, 2011년 10월 25일부터 올해 2012년 1월 7일까지 중국에서 대성황리에 공연된 「량산백과 축영대」는 한국전쟁시기 중국 극단이 북한에서 공연한 작품이다. 2009년부터 피바다 가극단이 북한이 공연했던 중국가극을 다시 것은 분명 과거의 우정을 되살리고, 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램인 것이다. 2010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이 공연한 러시아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은 2012년 6월 22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100회 공연을 맞이했다. 이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공연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2012년에 공연된 「아리랑」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2012년 9월 공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짐작되듯 김정일 사망에 따른 추모 내용과 김정은 찬양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선아리랑' 장이다.

다음의 사진과 같이 북·중 친선을 주제로 한 5장 '친선아리랑'은 북·중 친선을 과시하듯 배경대에 한글과 중문의 이중 표기가 있었다. 잠시 후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가 등장하여 뛰뚱거리고, 금색/푸른색의 용이

03□□□(□□)_□□□□□□15□ 13. 8. 13. □□ 4:24 Page 76



등장하여 화려함과 웅장함을 한껏 보여준다. 연이어 늘어가는 중국관객과 중국정부를 위한 연출인 것이다.

이외 북중 합작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2012)과 북한/벨기에/영국 합작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2012) 등도 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외부와의 교류의지가 중국과 러시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2년 초에 북한은 「라이온 킹」을 방영한 바 있다. 「라이온 킹」은 「햄릿」을 원작으로 창작된 작품인데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새롭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어린 사자로 김정은을 환치하고 싶었던 것일까. 「라이온 킹」을 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아빠 사자의 죽음을 맞은 어린 사자가 아빠 사자의 뺨을 부비며, "wake up"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북한의 성인 관객 모두가 통곡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03□□□(□□)_□□□□□□15□ 13. 8. 13. □□ 4:24 Page 77

북한 주민의 울음은 김정일을 잃은 김정은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인민의 통일된 정서를 위해 이 작품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의도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실상 왕위찬탈 소재의 극은 반드시 「라이온 킹」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터, 북한이 굳이 '라이온 킹'을 방영한 이유는 서구와의 교류를 의식한 행위인 것이다.

4) 과감한 스펙터클의 장려

2012년 7월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있었다. 공연에서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젊은 여성단원들이 헐리우드 영화 「록키」의 주제가를 전자 바이올린으로 연주했고, 이때 배경은 실베스타 스텔론이 뛰고 있는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 공연을 방영했고, 조선신보는 이를 '열린 음악정치'로 표현했다.(2012. 7. 12) 북한은 이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어버이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위대한 업적과 생활력을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직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출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뜻깊은 시범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03□□□(□□)_□□□□□□15□ 13. 8. 13. □□ 4:24 Page 78

1부와 2부로 구성된 공연무대에는 경음악《아리랑》, 녀성 4중창《그대는 어머니》, 녀성2중창《내 마음 별에 담아》, 녀성6중창《이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외국곡들인 경음악《챠르다쉬》,《싸바의 녀왕》, 경음악과 노래《세계동화명곡묶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모란봉악단은 내용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 펼치였다.[15)]

《조선예술》은 영화 「록키」나 실베스타 스텔론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새롭고 독특하며 개성있는 공연'으로 평가한다. 모란봉악단은 '북한의 소녀시대' 등으로 남한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반짝이 미니 원피스, 어깨선이 드러나는 의상, 킬힐은 북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변화라면 무엇의,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3개월 후에 공연된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2012년 10월 평양교예단은 올해 국립교예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예 「춘향전」의 첫 공연을 선보였다.《로동신문》은 교예 「춘향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예극은 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요술 등 교예의 모든 요소들을 극적방식으로 경합하여 춘향과 몽룡사이의 사랑관계를 형상함으로써 봉건적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륜리로 덕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연자들은 무대장치와 조명을 혁신하고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그네와 널뛰기, 줄타기, 물우에서 중심잡기를 비롯한 종목들과 관중들을 신비경에로 이끌어가는 요술등을 배합하여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잘 살리였다.[16)]

15) 『조선예술』, 2012. 9.
16) 「교예극《춘향전》 첫 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2. 10. 9.

03□□□(□□)_□□□□□□15□ 13. 8. 13. □□ 4:24 Page 79

위의 사진과 같이 교예 「춘향전」은 공중에서 줄타기, 물위에서 줄타기 등 현란한 배우들의 움직임을 과시한다. 사진①과 같이 물동이를 이고 밧줄을 타는 여배우는 보는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한껏 더함으로 관객을 즐겁게 한다. 또한 사진②는 월매가 방자와 향단이의 사랑 놀음을 목격하는 장면인데, 월매는 아슬아슬하게 줄 위에서 버티다가 물에 빠짐으로 관객의 폭소를 자아낸다. 영상으로 확인해 볼 때, 화려한 조명과 배우들의 높은 기량에 대한 《로동신문》의 자랑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펙터클의 화려함 역시 주목해야 한다.

사진③는 이몽룡이 행차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몽룡은 관객석 사이로 등장하고 있다. 가마에 탄 이몽룡과 이몽룡을 수행하는 배우들만으로도 장관을 이루는데 객석으로 등장하게 되면 객석부터 무대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행차는 시간의 확장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을 한층 배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진④은 해피엔딩 장면에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무대

03□□□(□□)_□□□□□□15□ 13. 8. 13. □□ 4:24 Page 80

주위를 크게 원으로 돌아감으로 관객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무대 자체도 화려하게 제작되었으며, 프로시니엄의 대형무대를 이몽룡과 춘향이가 줄을 타며 회전함으로써 볼거리의 극치를 연출한다.

모랑봉악단의 공연과 평양교예단 공연의 공통점은 이같이 화려한 볼거리에 있는 것이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 젊은 통치자 김정은과 함께 예술적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전까지 문화예술에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2012년에는 내용과 함께 형식, 특히 스펙터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 맺는 글: 전망

2012년 북한의 문화예술을 담론과 작품으로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연초 선군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포부는 일정부분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선군 담론을 이으면서 김정일의 우상화, 여성(가정주부)의 전면화,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새해의 포부를 실천해갔다. 다만 주목할 것은 스펙터클을 강조한 공연예술에 있어서는 선군이나 사회주의 사상 함의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예 「춘향전」은 배우들의 뛰어난 기량과 화려한 스펙터클이 돋보이는 공연일 뿐이다. 모란봉악단의 「록키」 주제가 연주도 연주일 뿐이다. 물론 북한은 「춘향전」과 모란봉악단 연주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수사는 수사일 뿐, 공연은 수사와 무관함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문화예술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크게 두 방향이 예측된다. 첫째는, 쉽게 짐작되듯 '우상화'현상이다. 2012년 《로동신문》이 보여주었듯이 김정일 사망 이후 광명성절 제정, 김

03□□□(□□)_□□□□□□15□ 13. 8. 13. □□ 4:24 Page 81

정일 전집 출판, 김정일 업적 정리 등은 향후 북한 문화예술계 방향의 미리보기가 된다. 김정일 우상화는 세습의 정당성과도 맞물려 있는 터,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 작업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가정주부 · 외부세계로 보내는 러브콜이다. 2012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성과작으로 평가하는 연극, 영화, 소설의 주인공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젊은 여성이 아닌, 중년여성의 전면화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중년여성을 산업의 주체로 호명하며 '어머니의 날'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동시에 북한은 외부세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작품의 공연은 2009년부터 실천되고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원형으로 한 「라이온 킹」의 방영은 분명 새로운 현상이다. 북한은 서구와의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실상 북한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개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은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1950년대 북한에서 번역된 바 있으며, 1960년대에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북한은 일정부분 경의를 표했다. 일례로 1963년 김관식은 「쉑스피어와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1964년 4월 23일 영국 애본강반의 스트래트포드에서 탄생한 쉑스피어는 1587년 경부터 런던에서 전문적으로 극장 생활을 시작하였다"며 장문의 글을 통해 셰익스피어를 소개한 바 있다.[17] 혼자 서야 하는 김정은의 체제 초반, 인민들의 정서적 응원 획득과 서구와의 교류를 위해 「라이온 킹」과 같은 소재의 작품들이 공연될 가능성은 큰 것이다. 여성과 외부세계에 보내는 북한의 러브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17) 김관식, 「쉑스피어와 극장」, 『조선예술』, 1963. 12호.

03□□□(□□)_□□□□□□15□ 13. 8. 13. □□ 4:24 Page 82

참고문헌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 1. 1.

《로동신문》, 2012. 11. 17.

《로동신문》, 2012. 2. 28.

《로동신문》, 2012. 3. 31.

국립연극단 단장 리지영, 「그 유훈 받드는 길에서 시대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국립연극단 인민배우 백승란, 「(수기) 장군님께서 다진 맹세 끝까지 지켜가리」, 서철, 「풍부한 미적정서를 안받침한 음향형상」, 주영숙, 「(평론)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더해준 부정인물들의 개성적인 연기형상」, 《조선예술》, 2012. 1.

《로동신문》, 2012. 1. 10.

「교예극 《춘향전》 첫 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2. 10. 9.

국립연극단 예술부단장 김홍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연극창조집단의 잠재력을 더 높이 과시해나가겠다」,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 정준하, 「인상깊은 두 장면을 통해 본 대비수법의 형상적 효과」, 《조선예술》, 2012. 2.

「신념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 《조선예술》, 2012. 2.

방금철, 「주체적인 연극무대미술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생동한 화폭 -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무대미술형상을 놓고-」, 《조선예술》, 2012. 3.

리금철, 「생활반영의 진실성문제를 두고」, 《조선예술》,2012. 5.

_____, 《조선예술》, 2012. 9.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1. 1. 1.

03□□□(□□)_□□□□□□15□ 13. 8. 13. □□ 4:24 Page 8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2011. 12. 31.
김관식, 「쉑스피어와 극장」, 《조선예술》, 1963. 12호.

박영정, 2012년 11월 통일정책포럼 발표글.

03□□□(□□)_□□□□□□15□ 13. 8. 13. □□ 4:24 Page 84

Abstract

The Characters of culture and art of the Kim Jeong-eun's sole dominion period.

Kim, Jeong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North Korean culture and art in 2012, which is the Kim Jeong-eun's sole dominion period, and to discuss its outlook for the future.

When North Korean culture and art in 2012 are closely examined in discourses and works, Kim Jeong-eun's aspi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making his country a military-first 'socialist civilized country' is considered successful to a certain extent. Kim Jeong-eun kept on practicing his New Year aspiration through the idolization of Kim Jeong-il, putting women in front, and inter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while having military-first discourses continu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erforming arts that emphasize spectacles are freed from the obsession of the military-first or socialist ideological implications. Acrobatic Chunhyangjeon is only a public performance in which superior abilities of actors and actresses and colorful spectacles are prominent. Moranbong Band's playing of the theme song of Rocky is only a performance. Of course, North Korea clothes Chunhyangjeon and Moranbong Band's performance with political rhetoric. But rhetoric is only rhetoric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03□□□(□□)_□□□□□□15□ 13. 8. 13. □□ 4:24 Page 85

performance has nothing to do with rhetoric

Then, in what direction will North Korea's culture and art develop in the future「 Roughly two directions are predicted. The first direction is, as can be easily guessed, the idolization phenomena. As North Korea's Rodong Sinmun newspaper showed in 2012, after the death of Kim Jeong-il, the enactment of Gwnagmyeongseong Holiday, the publication of completed works of Kim Jeong-il, the organization of Kim Jeong-il achievements become the preview of the direction of future North Korean culture and art circles. The second direction is the attention payed to house wives and the outside world. What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2012 was that the leading characters of dramas, movies, and novels which North Korea evaluated as success were all women. Particularly, the fact that middle-aged women, rather than young women, were placed in front is noteworthy.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is paying attention to the outside world. The performing of Chinese and Russian works has been practiced since 2009, but broadcasting Lion King, whose prototype is Shakespeare's Hamlet, is certainly a new phenomenon. North Korea is actively paying attention to the West. It is most probable for Kim Jeong-eun who has to stand alone to perform the works like Lion King in order to obtain emotional supports from the people and to interact with the West. North Korea's paying attention to women and the outside world will continue for some time to come.

주제어: 북한문화예술(North Korean culture and art), 김정은 단독 통치(Kim Jeong-eun' s sole dominion period), 사회주의 문명국(socialist civilized country), 여성의 전면화(putting women in front)

03□□□(□□)_□□□□□□15□ 13. 8. 13. □□ 4:24 Page 86

논문 접수일 2013. 05. 03.
논문 심사일 2013. 05. 24.
게재 확정일 2013. 06. 14.